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 목 : 나의 하루

나는 오늘 형아가 귀대회를 해서  
 일찍 일어났다. 형아가 가고 나는 장  
 남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. 형아  
 가 오자 피아노를 치고 공부를 했  
 다. 공부를 하고 형아 친구들이랑  
 야구를 하고 놀았다. 하지만 나는 어려  
 서 야구를 못해서 형친구 한명아랑  
 딱치치기를 했다. 돌아와서 형은 집  
 에 있고 나는 엄마랑 옷을 사러 갔다.  
 나는 앵그리 버드 티셔츠와 바지를  
 샀다 그리고 내친구 엄마가 포코픽도  
 사줬다. 정말 기분이 좋았다. 돌아와서  
 저녁으로 자장면을 먹었다. 정말  
 알찬 하루였다.